

이훈주 칼럼

학교 이지메현상과 그 속의 여여차별

‘못생긴 여자’를 희생시키는 지배문화의 각본 읽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적 학교 다닐 때 한 학급내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들간에 일종의 편가름이 있었던 것 같다. 주로 이 편가름의 기준은 성적이 좋으나 나쁘나, 집안이 부자나 가난하나, 외모가 좋으나 나쁘나, 또 여자나 남자나 등으로 양분되었었다.

이 네가지 기준을 갖고 확률적으로 집단을 나누면 16가지 집단이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2개의 집단으로 분류가 됐었다. 왜냐하면 주로 외모가 깔끔하고 집안 부유한 아이들은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성적도 따라 나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생생한 따돌림의 기억

여기에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따지면 4가지 집단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가지 집단으로 나뉘어 졌다. 그리고 이 양분된 아이들은 서로 조건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어울렸고 다른 편에 속한 아이가 자신들 사이에 끼는 것을 싫어했었다.

나의 기억속에는 어릴적 내가 다른 집단에 속한 아이들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 받았던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한 교사(장주향 29세)와의 만남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었다. 나는 그녀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릴적 내 경험을 회고조로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녀는 이 문제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무척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가 본 편가름의 기준

“일본에서는 학생들간의 폭력을 이지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랄 때도 일종의 편가름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성적이나 외모같은 걸로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노는 정도였지 상대편에 대해 폭력을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우리때보다는 좀 더 폭력적인 것 같아요. 일본만큼 심하지만 않을 뿐이죠.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의 편가름 기준인 성적, 재산 등이 요즘 아이들간의 편가름 기준으로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

만 그 위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생활환경이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고, 멀티미디어 세대들이라 보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도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은 소위 ‘튀는 아이들’과 ‘칙칙한 아이들’간의 집단 구분

되었는데 지금은 어리숙하고 성적도 좋지 않고 체격도 왜소한 아이들이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지배하는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이상에서 남녀공학

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같이 놀지도 않을 뿐더러 말도 잘 걸지 않고 조그만 일에도 싸우려 들고 트집잡고 괜히 눈을 흘기고…… 더욱 심한 것은 자기네들끼리 있다가 그 애가 지나가면 괜히 쏘덕대는 거 있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는 거죠. 또 모든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종의 ‘희생양’이 되는 아이들과 그를 둘러싼 다른 아이들의 집단적 가학행위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 따돌림의 정도가 심해서 폭력적이고 철저한데다가 집단 가학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아이들이 약자인 경우가 많 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이들간

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녀간의 성구별에 의한 따돌림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남녀공학 중학교의 교사로서 장주향씨가 들려준 중학교 1학년 한 여학생의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여자아이들이 더 큰 희생자

“제가 제작년에 담임을 맡았을 적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 성격이 나쁜 아이도 아니고 미운 짓을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

가슴에 상처가 되겠어요? 나중에 담임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눈치도 주고 설득도 해보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의 반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간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행동이 둔하고 머리가 나쁘고 못생긴 아이들이란 것이었죠. 그 대상이 여자아이일 경우는 남학생들로부터는 주로 물리적으

애를 선생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선생님, 선생님도 사실은 저를 미워하시나요?”

그 ‘희생양’ 아이와 그애를 둘러싼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치밀한 따돌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존재 가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그 아이로 하여금 차별과 따돌림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학교 이지메 현상 속에서 ‘못생긴’ 남학생에게는 거의 발견되지는 않지만 ‘못생긴’ 여학생에게는 매우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따돌림과 배척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못생긴 아이’를 향한 남성위주 사회의 폭력

여기에는 매우 치밀한 각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각본의 개요는 이렇

다. 첫째, 남성위주의 사회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기 보다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상품화하였다. 둘째, 이러한 여성관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에게까지 내면화 되었다. 셋째, 따라서 못생긴 여자애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애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는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시각과 그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남성위주의 사회는 결국 ‘못생긴’ 아이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주변의 집단 가해자들도 그들의 가학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학교 이지메 현상 자체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학교 이지메의 형태 변화가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원의 의식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때 그 속에도 분명히 남녀차별과 그로 인해 파생된 여여차별의 모티브가 존재한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장주향씨는 나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에게 부당하게 씌워진 굴레를 벗겨주고 싶어요.”



필자 이훈주 (42)씨는 현재 방송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문화연구소>대표로 있으며 교육방송의 일요초청특강 및 영예대본을 담당하는 한편 <말>지 등에 여성칼럼을 연재 중이다.

서강대 화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품검단에서 일하던 도중 ‘윙크 사업’ 비리의 핵심부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화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플로리다 대학 약리학과에서 포스트 닥터, 플로리다 의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가 95년 귀국했다.

전공분야 외에 한국사회의 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던 이훈주 씨는 의식전환을 위한 방송매체의 역할에 눈을 뜨게 되었다. 94년 9월부터 한국에 ‘이훈주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여성문제와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중점적인 기획 테마로 잡고 방송기획을 해왔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프로덕션을 운영하다가 방송에 전념하기 위해 95년 9월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였다.

시민단체 성격의 <새로운 방송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물 제작과 방송비평 등 방송을 통한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페미니스트 칼럼을 발표하면서 여성문제 전문 칼럼리스트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간호사 아내와 두 아들을 가족으로 둔 이훈주 씨는 주부(主夫)경험이 풍부한 페미니스트로 “여성문제는 남자가 풀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신중 남자의 행복을 보이고자 한다. 본지에서는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행복한 삶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적 고민의 산물을 연재 칼럼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남성위주의 사회는 결국 ‘못생긴’ 아이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주변의 집단 가해자들도 그들의 가학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의 편가름의 기준이 보다 다양해졌고 그 집단 간 갈등의 표출 형태가 보다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한 학급 또는 학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그 아이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심리적 폭력도 그 자체로서 큰 문제가 되겠지만 윤리적으로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것이었다. 과거는 ‘약자보호주의’가 지켜졌기 때문에 잘난 체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주로 그런 따돌림의 대상이

하게 아이들이 짓궂게 대하는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남자애들은 그 애만 지나가면 괜히 물을 뿌린단든가 지우개를 던진단든가 하는거였어요. 좀 짓궂은 애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감추는 장난도 치고 심한 경우는 머리를 쥐어 박는 남학생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학생들의 행동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애를 남학생들로부터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다른 여자애들도 그 애만 보면 이상하

로 따돌림을 받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여자아이들의 따돌림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장주향씨는 그 애의 심성이 착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 선생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해주면서 그 애가 기가 죽지 않고 크길 기대했다. 나중에 장주향씨는 그 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고 한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너같이 못생긴